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모의 면접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 이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대학 입학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거예요. 피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지원하려는 학과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써서 면접자에게 전해 주라고 했었죠? 나름대로 질문을 예상해 보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했나요?

학생들 : 네.

선생님 : 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면접 목적을 고려해서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피면접자의 학과 선택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했나요?

학생들 : 네.

선생님 :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면서 면접 담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모의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과제를 잘 해결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모의 면접〕

면접자 : 음, 학생의 글을 보니 그림에 재능이 있고, 진로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예창작과에 지원했군요. 이 말은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림과 문예창작과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피면접자 : 희망 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소설이나 동화의 삽화입니다. 좋은 삽화를 보면 이야기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는데, 바로 그런 삽화를 그리는 게 제 꿈입니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에 딱 맞는 삽화를 통해 감동을 주고, 직접 소설을 쓰기도 하는 삽화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면접자 :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 학생의 답변을 들으니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림 공부는 잠시 미루는 건가요?

피면접자: 아뇨. (힘을 주어) 그동안 꾸준히 해 온 것처럼 힘
들더라도 그림 공부하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면접자 :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㉔ 그림 그리는 것 외에 소설 창작이나 다른 글쓰기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피면접자 : 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구요, 읽고 나서는 감상문을 기록했는데, 삽화에 대한 느낌도 함께 적었습니다. 또 학급 문집 만들거나 학교 신문바 활동도 했습니다.

면접자 :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질문지에 있습니다. (질문지를 건네주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자료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71)

(4)

그는 친구들의 칭찬에 ‘뭐, 그 정도쯤이야.’ 싶었지만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대견했다.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으쓱한 기분으로 손가락으로 턱을 문질렀다.



면접자: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 수단의 차이부터 설명해 볼까요?

피면접자 : ([A])

1.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하였다.
 -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를 질문하였다.
 - ③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하였다.
 - ④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였다.
 - ⑤ ‘피면접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답변하였다.
2.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모의 면접’을 평가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미리 제공된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질문이군.
 - ② ㉠은 질문 의도를 고려할 때 제시된 과제에 부합하는 질문이군.
 - ③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겠군.
 - ④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로에 대한 피면접자의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은 피면접자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질문이군.

3. <보기>와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의 답변을 위한 피면접자의 사고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면접에서 피면접자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하고, 의견에 관한 것일 경우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답해야 한다.

	질문 파악	답변 계획
①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구나.	자료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서 글과 그림이라는 두 매체의 특징을 대조하며 답해야겠어.
②	두 자료의 표현 수단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구나.	각각의 자료에서 인물이 드러내는 감정을 토대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여 답해야겠어.
③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에 관해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구나.	글과 그림 모두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심리를 드러낼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해야겠어.
④	두 자료의 표현 수단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구나.	글과 그림 중 선호하는 매체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답해야겠어.
⑤	두 자료에서 심리 표현 수단이 다른 이유를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구나.	인물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답해야겠어.

- [4~5] 다음은 독서 토론 동아리 부장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1위는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였고, 2위는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이 많아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서 토론 노트를 보여 주면서) 이 노트는 토론 전, 중, 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 전 활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윗부분을 가리키며) 이곳에 책의 제목과 독서 진행 상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책의 내용 및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논제는 따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노트를 작성하면 첫째, 다른 친구들의 독서 상황을 확인하여 토론 진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저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논제로 삼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론할 때 자신의 논거와 상대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는 중에는 다른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거나 궁금한 것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이 노트에 토론 결과나 토론할 때 잘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적어 두면 다음 번 토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 토론 노트는 독서에서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토론 노트를 사용하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들은 물론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어서, 우리 동아리의 독서 토론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
-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겠어.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해야겠어.
-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학생 1 : 요즘 독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 논제와 관련 없는 얘기로 토론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고…….
- 학생 2 : 부장은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군.
- 학생 3 : 지난 시간 학교 행사 때문에 설문 조사 참여율이 낮았는데 전체 의견을 다시 들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 학생 4 : 독서 토론 노트는 좋은 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을 텐데…….
- 학생 5 : 부장 말대로 독서 토론 노트를 쓰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당장 써 봐야지.

- ① 학생 1은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자의 주장과 그 근거가 편향된 것은 아닌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

[6~8] 다음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수업 시간에 연설을 듣고, 같은 화제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논설문 쓰기
- **연설 내용**: 고령화 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호 문화의 회복 촉구
- **수립한 논지의 방향**: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 **선생님이 알려 주신 유의 사항**

“논설문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설정하고, 내용은 참신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단, 관련된 개념은 명확히 한정해 사용하고 표현은 정확하게 하며 객관적 설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논문과 달리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활용할 자료

(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개발원, 2012)

유형 내용	사회 공헌형(공공 분야)	시장 진입형(민간 분야)
운영 방식	전액 정부 예산으로 급여 지급 - 1인당 20만 원, 7개월간	정부 보조금 일부와 사업 소득으로 급여 지급 - 연중 운영
주목적	사회 참여 동기 충족	생계비 확보 욕구 충족
일자리 창출 실적	194,480개(88.3%)	25,866개(11.7%)

(나) 노인 일자리 관련 연구 결과(○○연구원, 2012)

고령 근로자의 근로 목적	경제적 안정	65%
	사회 참여 및 기타	35%

민간 분야 부진의 주요 요인

- 초기 투자비와 고객 및 수요처 관리비 부담
- 지자체의 전담 기관과 전담 인력 부족
- 소비자가 선입견으로 인해 노인 참여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

(다) 전문가 의견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고취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부양비, 의료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죠. 그런데 공공 분야의 노인 일자리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보기 2>

1. 서론㉠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현황㉢
 -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시사점㉣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 방안㉤
5. 결론

6. <보기 1>에 주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종류와 화제의 성격을 참작하여 비전문가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 ②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할 자료는 동일한 관점의 것들로 제한한다.
- ③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시장 진입형’ 등은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뒤 사용한다.
- ④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참신한 내용으로 제시 하되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해 논거를 마련한다.
- ⑤ 중심 내용은 주장과 논거를 기본 형식으로 하여 서술하되 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의 방식도 활용 한다.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수업 시간에 들은 연설 내용을 활용하되, 노인들의 자립적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언급하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 해야겠어.
- ② ㉡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노인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 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③ ㉢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 측면 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 으로 현황을 제시해야겠어.
- ④ ㉣에서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생계 수단에서 사회 참여 수단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⑤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민간 분야 활성화에 초점 을 맞춰 관련 사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전담 기관과 인력 확충, 일반 시민에 대한 광고와 홍보 지원 등을 제시해야겠어.

3 / 16

가

8. <보기 1>의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결론에 들어갈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의의
- ② 소외된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우리 사회의 효 문화 회복 촉구
- ③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제언
- ④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전망
- ⑤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 풍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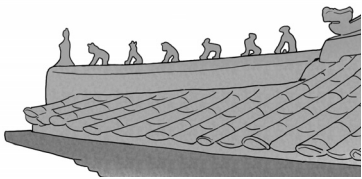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

- 예상 독자 :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
- 글감 선정 : 학교 친구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잡상’이란 글감을 택하여 글을 써야겠다.
- 글 쓰는 목적 :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
- 자료 수집 :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
-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와 예시 등의 방법을 통해 잡상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
 - 첫 번째 단락 : 잡상의 개념을 정의해야겠다.
 - 두 번째 단락 : 잡상의 다양한 형상을 예시하고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 마지막 단락 : ㉠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어야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활용해야겠다.

(나) 학생의 초고

궁궐을 자주 다녀 본 친구들도 궁궐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조형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잡상이라 부르는데요, 잡상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 장식물을 뜻합니다. 잡상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여러 개를 동시에 지붕 위에 올리는데 그 형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봉황이나 용, 해태와 같은 전설 속의 동물도 있고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처럼 친숙한 것도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잡상을 올리는 이유는 잡상이 궁궐에 행운을 불러오고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집에 처용의 그림을 걸어 나쁜 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9.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를 학교 친구들로 한정된 것에서, 작문은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② 잡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에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③ 정의, 예시 등을 통해 잡상을 설명한 것에서, 작문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에서, 작문은 소재에 따라 내용 구성 방법을 달리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잡상을 선정하여 소개한 것에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을 참고하여 (나)의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지금도 궁궐 지붕 위에는 잡상들이 열병식을 하듯이 일렬로 늘어서서 궁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잡상에는 나라의 근간인 궁궐을 보호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 ③ 잡상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궁궐 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궁궐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 ④ 궁궐과 잡상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궁궐과 잡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 ⑤ 잡상은 고궁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러한 잡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 가야겠습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얼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불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2.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
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
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
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
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로마자 표기법은 국제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음 자료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표기	표준 발음	올바른 로마자 표기	
가락	[가 락]	garak	 ㉠
앞집	[압 께]	apjip	 ㉡
장롱	[장:농]	jangnong	 ㉣
학생 :		(가)	

-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ㅈ’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ㅈ’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④ ㉠에서 ‘락’의 ‘ㄹ’은 ‘r’로, ㉣에서 ‘롱’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롱’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⑤ ㉡에서 ‘집’의 ‘ㅈ’과 ㉣에서 ‘장’의 ‘ㅈ’을 같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앞집’의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1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 할머니 : 어서 와라. ㉠ <u>김 서방</u> 도 잘 지내지? 고 모 : 네, 엄마. ㉡ <u>그이</u> 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 네, ㉢ <u>아가씨</u> .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 아니에요, ㉣ <u>고모</u> .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 응, ㉤ <u>고모부</u> 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15.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뉘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뉘아가다

↓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예 → ㉠
 아니요 →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예 → ㉡
 아니요 →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뉘아 가다 또는 뉘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뉘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뉘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뉘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뉘아 가다 또는 뉘아가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의, ㅅ, ㅣ'가 있었다. 이 중 '의, 의, ㅅ'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의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예) 늑+의: 늑^ㅅ 밧 거스디 아니헛거든 (늑의 밧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거북^의 터리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ㅅ: 大王^ㅅ 말쑤미샤 울커신마론 (대왕의 말쑤미야 웅으시지만)

나무+ㅅ: 나무^ㅅ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 술위+㉡ 글위를 낄 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①	의	ㅅ
②	ㅅ	의
③	의	ㅅ
④	ㅅ	의
⑤	의	의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는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해 있었다. 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 의식,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오히려 감독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들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 B급 영화: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에 제작되어 완성도가 낮은 상업적인 영화.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작가주의와 그에 대립하는 비평 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다.
- ④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맥거핀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을 말한다.
- ②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③ 프랑스 영화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④ 할리우드에서 제작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흥행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⑤ 할리우드에서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 인력들 간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였다.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제작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 ② ㉢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 ③ ㉢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다.
- ④ ㉢는 ㉠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는 ㉠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 윗글의 ㉠과 <보기>의 ㉡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의 일부 분일 뿐이다.

- ① ㉠은 ㉡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 ② ㉠은 ㉡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 ③ ㉠은 ㉡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 ④ ㉡은 ㉠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 ⑤ ㉡은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856년에 포그슨은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등급 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다.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그러나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6.8 정도에 해당한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즉,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 이처럼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파섹: 거리의 단위로서 1파섹은 3.086×10^{13} km, 즉 약 3.26광년에 해당한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frac{1}{9}$ 배가 되겠군.
 - ②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겠군.
 - ③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겠군.
 - ④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겠군.
 - ⑤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가 나겠군.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가상의 별 A, B에 대한 정보이다. 별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는 각각 별 A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1로 설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지수	반지름	표면 온도
A	2	-1	3	1	1
B	1	-6	7	0.1	10

- ①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크다.
- ②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이다.
- ③ 별 B는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
- ④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 ⑤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율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뿔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션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때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적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껌껌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슨 소림니꺼?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입니꺼? (건우 증조부, 손에 쥔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 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고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쩐다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쪼각을 배 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 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E.L.S.: 익스트림 롱 쏿.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왕이 대로하여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왈

㉠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오.”

호왕이 대로하여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어라.”

하니, 경업이 크게 꾸짖어 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을 불변하여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며 맨 것을 풀고 손을 이끌어 올려 앉히고,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오. 장군의 소원대로 하리라.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셔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시더니,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천자에게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았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꺼워하사 궁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더니, 경업이 나아와 울며 절하니,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보더라.

호왕이

“경들을 임경업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들을 보내나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은을 구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소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중략)

세자와 대군이 급히 궐내에 들어가 대전께 뵈운데, 주상이 반기사 왈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가라사대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은을 구하여 오느냐?”

하시고 벼루로 내리쳐 치시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하시니, 이때는 을유년이라.

이때에 호왕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부마를 구하더니, 호왕이 경업을 유의하여 공주더러 이르니, 공주가 관상 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 부마에 뽕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숨을 넣어 키를 세 치를 돌우고 들어갔더니, 공주가 엿보고 왈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형용이니 짐짓 영웅이로되, 다만 키가 세 치 더한 것이 애닦다.”

하거늘, 호왕이 마음에 서운하나 그와 방불한 자가 없는지라. 이에 장군더러 왈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

장군이 사례하기를,

㉡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공하며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이다.”

호왕이 재삼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써 좇지 아니하니, 호왕이 안타까워하더라.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 호왕이 미루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

호왕이 그 말을 따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 의주까지 호송하니라.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는지라. 경업이 돌아오는 때문이 왔거늘, 자점이 헤오되,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상계 아뢰기를,

“경업은 반역 죄인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는 수 없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 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

상이 크게 놀라 왈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중하사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그 무리와 의논하여 왈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라.”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使者)가 와 이르되,

“장군이 반역했다 하여 역률(逆律)로 잡아 오라 합니다.”

하고 칼을 씌우며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 왈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피하더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군은 호왕의 배려에 따라 소원을 말하였다.
- ② 호왕은 적국의 임금인데도 강직한 임경업을 살려 보냈다.
- ③ 호국 신하들은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 ④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임경업의 소원을 방해하였다.
- ⑤ 주상은 세자와 대군은 돌아오고 임경업은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40.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왕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 ② 이 사건의 주요 과정인 관상 보기에 대해 공주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③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경업이 천하절색이라는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둠으로써 그가 세속적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④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혼사는 여전히 호왕이 주도하면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이 사건은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에 대한 호왕의 호감에서 비롯됨으로써 사건 전개에 연속성을 강화한다.

41. 임경업이 말한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회유에 대해 대응하고, ㉡에서는 권유에 대해 반응한다.
- ② ㉠에서는 충신의 도리를, ㉡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언급하여 거절한다.
- ④ ㉠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
- ⑤ ㉠에서는 죽음을 작정하고, ㉡에서는 억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승의 문집 『효전산고』를 보면, 종로의 담배 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내가 자점이더냐?”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 사건은 청에 대한 적대감, 임경업에 대한 혐오 의식에 바탕을 둔 『임경업전』에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보여 준다.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 ②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혐오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하겠군.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이겠군.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엇더ᄃᆞ며 저런들 엇더ᄃᆞ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ᄃᆞ료
ᄃᆞ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肱)을 고쳐 ᄃᆞ슴 ᄃᆞ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ᄃᆞ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ᄃᆞ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ᄃᆞ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ᄃᆞ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ᄃᆞ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ᄃᆞ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ᄃᆞᄃᄃᄃᄃᄃ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ᄃᆞ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ㅣ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ᄃᆞ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ᄃᆞ슴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ᄃᆞ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 ᄃᆞ가지라
ᄃᆞ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
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순풍: 순박한 풍속.

*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뽕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